

명품하천 만들기, 시민 의견은?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천변서 청취... 체육로 이용 시민들 “주변 운동시설 다양하게 설치”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천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생물이 살아 숨쉬는 명품하천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김 시장은 11일 이른 아침부터 전주생태하천협회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전주시 어은쌍다리 전주천변을 함께 걸으며 이곳을 찾

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생태하천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주시와 전주 생태하천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제를 한 시민 설문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설문의 주요내용은 △하천의 이용 현황 △이수 및 치수, 친수시설 및 이용시설 △하천 생태관리 등으로, 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하천관리 및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급수 지표종

인 슈리와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고 전국 최초로 늦반딧불이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전주하천을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전주천 체육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체육로의 주변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 줄 것과 주변 잡초를 제거해 주변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송효철 기자



깊어가는 가을 정취 만끽
자연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호동골 허수아비자연놀이터 행사가 11일 전주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양묘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민개한 코스모스를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공적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실험

전주시-전북대, 세미나서 협동조합 아파트 등 사례 학습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사례학습을 나섰다.

시와 전북대학교는 11일 전북대 생활과학대학 116호실에서 ‘공공지원 공적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 탐색’을 주제로 관·학 정례 조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준호 사회적경제센터 더함 부대표가 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실험이자 입주인 협동조합 아파트인 ‘위스테이’의 사례발표를 했다.

더함은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주관사다.

김 부대표는 “‘위스테이’의 장점은

단순히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뿐 아니라 입주인이 직접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고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가치를 확장시킨 사례로,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용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며 “향후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 소셜빌딩 프로젝트, 도시 재생 프로젝트 등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주택공급을 넘어 사회의 니즈를 포착, 종합 사회적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는 공적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실험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이날 “이번 세미나를 전주지역에 다양한 공적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주거실험 모델로 참고해 지역특성에 맞게 참여주체를 양성하고 전주시 주거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오늘이 자리는 전주시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정책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주거실험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동력이 되고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로 발전해 가는 공적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실험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이날 “이번 세미나를 전주지역에 다양한 공적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주거실험 모델로 참고해 지역특성에 맞게 참여주체를 양성하고 전주시 주거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오늘이 자리는 전주시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정책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주거실험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동력이 되고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기초 실무교육 실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초기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창업기초 실무교육과 전문가 상담 워크숍을 진행한다.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진흥원이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개최, 올해 스마트창작터를 통해 사업화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과 전주대학교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기업 등 총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초기창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 실무교육과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사업 안내 및 현장 상담으로 구성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창업 자금 지원제도 안내 △창업 성장 지원사업 안내 △창업성공사례 특강 △창업기업 인사·노무 △창업기업 회계·세무 △투자 및 출구전략 순으로, 초기 창업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들 기업의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으로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교육

전주시는 11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시설작물 재배농가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 개량 방법과 효과, 시설작물 연작장애 해소, 악취제거, 작물의 수량, 품질향상 등 현장적용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복합균,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은 토양 속 유해균의 밀도를 낮춰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작물의 생육촉진과 작물의 수량, 품질, 저장성 향상, 병해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송효철 기자

마당 정원부터 녹색커튼까지

전주시, 초록도시 공모 우수 15팀 시상식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회의회는 11일 카페 파티오에서 전주지역에너지계획 민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초록도시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15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문제와 도심열섬 해소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초록공간을 만들고 가꿔온 시민들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약 5개월 동안 ‘전주초록도시 공모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마당 및 옥상 등을 활용한 정원·텃밭 조성 △벽면녹화와 녹색커튼 조성 △가정 에너지·생태적 건축기법을 활용한 주택과 건물 또는 공간조성 사례 등 35개 사례가 수렴됐다.

또한, △생태적 가치 △저 에너지 지향 △심미성 △지속가능성의 4가



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수상작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꾼 초록공간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꾸고 만들어 갈 사례들로 선정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 전주지역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에너지 정책과 시민들의 관심 및 실천을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이 실현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시민행복 복지정책 수행 ‘결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대상’... 복지정책 추진도 최우수

전주시가 정부평가에서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가장 잘 수행한 도시로 인정 받았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 지역 사회 문제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능동적·적극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3대 추진전략 아래 8개 중점추진사업과 59개 세부사업 시행결과를 제출했다.

특히,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사업으로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전주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화 △전주형 창의학교 야호학교, 전주아이숲 조성 등 아동친화도시 구축 사업을 কেন, 심사위원들로부터 복지정책의 끈들이 잘 짜여져 있으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효철 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인식 전환 특강

전주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인식 전환특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센터는 11일 센터 강당에서 취업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경력단절여성 130명을 대상으로 ‘당당한 나를 위한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취업인식 전환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

기 위한 것으로, 김미림 미라클인에듀원장이 강의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사회생활에서 이미지가 갖는 영향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미지메이킹 방법 및 메라비안(Mehrvan) 법칙 △자기관리를 통해 여성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찾아 감점화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